『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14)*

-유가08 19:23-21:15(끝) 부분을 중심으로-

鄭鎭元**

요 약

이 글은 『瑜伽師地論』(Yogacārabūṃmi) 권8 『유가사지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권8의 19장 23행부터 21장 끝까지의 점토석독구결의 잠정적인 해독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구결

1. 유가사지론에 대하여[1]

유가사(yogā-cāra)는 요가수행자라는 뜻이다. 유가관행자(瑜伽觀行者), 요가의 스승이라고도 한다. 이 유가사들에 의하여 유식사상이 발생했다. 이 사상을 발전시킨 학파를 유가행파(瑜伽行派)라고 하는데

---

* 이 글은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5년 12월 17일)에 강독한 발표문에 대하여 유가사지론의 일반적 내용을 보충하고 강독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고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1) 유가사지론 전체 개괄적인 내용은 박진호(2004)와 김성주(2005)의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와 (6)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본고는 『유가사지론』의 뜻과 권 8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중관파(中觀派)와 함께 후대 인도 대승불교의 두 유파를 형성한다. 유가행이란 요가(yoga)의 실천(ācāra)을 의미하고 유가행파의 학설은 법상종에 해당한다. 법상(法相)이란 법, 즉 가르침의 형태라는 뜻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학문(아비달마)이다.

『유가사지론』은 미륵보살이 짓고 현장이 648년 한역한 것으로 유가행파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다. 100권에 이르는데 앞의 50권을 '본지분(本地分)'이라고 하며 17가지의 '유가사(瑜伽師)의 단계(地)'가 설(論)해져 있다. 구성은 간략히 말하면 불제자의 수행 단계를 설한 성문지(聲聞地)와 대승보살의 수행 양상을 설한 보살지(菩薩地)가 있다. 권 8은 그 본지분 17 단계 중의 ③유심유사 등 삼지(有尋有司等 三地)에 속한다. 이 삼지(三地)는 삼계(三界) 오취(五趣)의 흩어지고 고정하는 상(相)을 자세히 설한다. 또 이 세 단계는 경(境)의 상(相)을 밝히고 경상(境相)의 거칠고(尋) 미세함(伺)을 다시 유심유사(有尋有司)·무심유사(無尋有司)·무심무사(無尋無司) 셋으로 나눈 것이다.[2]

1.1. 유가사지론 권8의 구성

권 8은 雜染施設建立에 대한 것인데 ㉠煩惱雜染, ㉡業雜染, ㉢生雜染의 三種雜染으로 일어난다. 또한 각각의 雜染은 ①自性, ②分別, ③因, ④位, ⑤門, ⑥上品, ⑦顚倒攝, ⑧差別, ⑨過失의 9가지 원인으로

2) 전체적인 내용은 이지수 역(1989:15-)과 한글대장경 유가사지론 1(1995:17-20)을 참조하여 요약하였다. 한편 有尋有伺地는 심(尋)도 있고 사(伺)도 있는 경지이고, 欲界로부터 色界 初禪에 이르는 有漏와 無漏의 여러 법을 설명한다. 無尋有伺地란 심은 없고 사만 남은 경지이며, 初禪으로부터 第2禪까지의 여러 법을 해석한다. 無尋無伺地란 심과 사가 모두 없어진 경지를 말한다. 이들은 제3지부터 제5지에 해당한다. 이 3지에 대해서 계(界), 상(相), 여리작의(如理作意), 불여리작의(不如理作意), 잡염(雜染) 등의 5문(門)으로 나누어, 제2, 제3, 제4선과 無色界 전체의 여러 법을 해석한다. 이 부분은 구결 세미나에서 이용하는 treepad(박진호 작성)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생겨난다.

㉠①煩惱自性 01:14-01:16 ㉡①業自性 09:18-09-20 ㉢①生自性
㉠②煩惱分別 01:17-04:16 ㉡②業分別 09:21-20:20 ㉢②生分別
㉠③煩惱因 04:17-05:02 ㉡③業因 20:21-21:01
㉠④煩惱位 05:03-05:07 ㉡④業位 21:02-21:15
㉠⑤煩惱門 05:08-05:17 ㉡⑤業門
㉠⑥煩惱上品 05:18-06:07 ㉡⑥業上品
㉠⑦煩惱顚倒攝 06:08-06:23 ㉡⑦業顚倒攝
㉠⑧煩惱差別 07:01-08:22 ㉡⑧業差別
㉠⑨煩惱過失 08:22-09:12 ㉡⑨業過失

이 중 본고에서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 ㉡業雜染의 고딕 글씨 ②③④부분이다. 이 ㉡業雜染은 9가지로 하위 분류되는데 본고에서는 9가지 중 두 번째인 ②業分別 중간부터 시작하여 ④業位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②~④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業雜染 중 ②業分別·③業因·④業位의 구성

②業分別은 [1]補特伽羅相差別, [2]法相差別의 2종으로 나뉜다.

또한 이 두 종류에는 10가지 善不善業道가 있다 : ①(離)殺生, ②(離)不與取, ③(離)欲邪行, ④(離)妄語, ⑤(離)離間語, ⑥(離)麤惡語, ⑦(離)綺語, ⑧(離)貪欲, ⑨(離)瞋恚, ⑩(離)邪見.

본고는 두 번째 [2]法相差別의 善業道 부분 중간부터 시작한다. 善業道 10가지 중 語業의 하나인 ⑦綺語부터 意業인 ⑧(離)貪欲, ⑨(離)瞋恚, ⑩(離)邪見이 이어지고, 그 다음 不善業道 10가지를 묶어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것은 앞의 선업도와 상반되는 10가지가 반복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후 상위 단계인 ㉡業雜染의 세 번째 ③業因과 네 번째 ④業位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본고의 장차(張次)는 다음과 같다.

㉡業雜染②業分別 [2]法相差別 善業道와 不善業道

[2]⑦綺語	19:23-20:02
[2]⑧貪欲	20:03-20:05 意業
[2]⑨瞋恚	20:06-20:08
[2]⑩邪見	20:08-20:11<十善業道>
[2]①離殺生	20:11-20:13 身業
[2]②不與取~⑩邪見	20:13-20:20 語業·意業<十不善業道>

㉡業雜染,③業因	20:21-21:01
㉡業雜染,④業位	21:02-21:15

2. 해독안

이 글에서 점토석독구결의 해독안은 다음과 같이 A부터 E까지의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A: 한문 원문 순서대로 각 한자에 현토된 점토의 위치 및 형태 표시
B: A의 점토구결을 자토구결로 바꾼 것
C: 우리말 어순에 맞게 고치고, 생략된 토를 보충하여 자토석독구결의 형식으로 바꾼 것
D: C의 문법 형태를 고려하여 현대어로 직역한 것
E: 한문 원문에 대한 동국대학교 역경원의 번역

2.1. 雜染施設建立㉠業雜染②業分別〔2〕法相差別-語業

<유가08 19:23-20:02>

A: 云何[34(·)]綺語[51(·),15(·.)]謂起綺語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若卽[21(·)]於彼[23(·),44(·)?]起不相應語方便[34(·),+15~25(-),31(·)]{43(·)}及{14(·)}於不相應語[44(·)]究竟[3][+15~25(-),31(·),42(·)?]中[44(·)]所有[42(·)]語業[51(·)]

B: 云何[ㄱ]綺語[ㅣ,ノ𠂉ロ]謂起綺語欲樂[ㄱ,ノ尸,人]起染汙心[ㄱ,ノ尸,人]若卽[ㅎ]於彼[ㅋ,十]起不相應語方便[ㄱ,ノ尸,人]及於不相應語[十]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七]語業[ㅣ]

C: 云何ㄱ 綺語(ㅐ)ㅣノ𠂉ロ 謂 綺語欲樂ㄱ 起ノ尸人 染汙心ㄱ 起ノ尸人 若 卽ㅎ {於}彼ㅋ十 不相應語方便ㄱ 起ノ尸人 及 {於}不相應語十 究竟ノ尸人七 中十 有(ノㄱ) 所七 語業(ㅐ)ㅣ

D: 무엇을 ⑦綺語[4]라 하는가? 즉 (다른 유정에게)[5] 綺語欲樂[6]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7]을 일으키는 것과 곧[8] 그에게(다른 유정에게) 不相應語[9]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나아가/및 (다른 유정에게) 不相應語를 일으켜 究竟[10]하는 것 중(동안)에 있는 바의 語

---

3) 마지막 획이 없는 탈획피휘자이다.

4) 綺語 : 잡예어(雜穢語)라고도 함. 무의미하고 무이익한 꾸미는 말. 나쁜 의미의 농담. 외설적인 농담. 말에다가 치장만 한 진실되지 못한 말. 농지거리. 戱言. 10惡業의 하나. 세상의 경박한 말, 버려야 할 말. (본고의 의미 파악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고딕으로 처리하였다.)

5) D에 표시된 ( ) 안의 부분은 한문의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여 필자가 해석한 것이다. 이하 D의 ( )부분도 모두 같다.

6) 欲樂 : 바라고 원하는 것. 욕구. 욕망.

7) 染汚 : 물들어 더럽히다. 雜染. 더러움, 번뇌 등으로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는 것.

8) '若卽'을 구체적인 설명을 이끄는 '예컨대'로 의역하자는 의견과 '그에게 즉하여', '다시 말해'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9) 相應 : 이치에 맞는 것. 부합. 적합하다.

業이다.

E: 무엇을 비단말이라 하느냐 하면, 비단말을 하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곧 그것에 서로 알맞지 않는 말의 방편을 일으키나니, 서로 알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말의 업이다.

⑦ 云何綺語。謂於他有情起綺語欲樂。起染汚心。若卽於彼有情起不相應語方便。及於彼有情起不相應語究竟中所有語業[11]。(語業 끝)

2.2. 雜染施設建立㉡業雜染②業分別〔2〕法相差別-意業

<유가08 20:03-05>

A: 云何[34(·)]貪欲[=51(·),+15(·.)][12]{25(·)}謂於他[23(·)]所有[22~23(·),33(·)?,44(·)]起[역독선]己[23(·)]有[22~23(·),11~21(-),42(·)]欲樂[34(·),+15~25(-),31(·)]起染汚心[34(·),+15~25(-),31(·)]若於他[23(·)44(·)?]所有[22~23(·),44(·)]起己[23(·)]有[22~23(·),11~21(-),42(·)]欲樂決定方便[34(·),+15~25(-),31(·)]及於彼[23(·),44(·)]究竟[13][+15~25(-),31(·),42(·)]中[44(·)]所有[33(/),42(·)]意業[51(·)]

B: 云何[ㄱ]貪欲[ㅣ,ノ𠂇ロ]謂於他[ㅋ]所有[ㅛ,ㄱ,十]起己[ㅋ]有[ㅛ,ㅌ,七]欲樂[ㄱ,ノ尸,人]起染汚心[ㄱ,ノ尸,人]若於他[ㅋ,十]所有[ㅛ,十]

---

10) 究竟 : ①궁극의 경지, 사물의 극한. ②도달하다. 이르다. 다다르다. ③최후의 목적.

11) 권 8의 마지막 부분 특히 '업분별'은 동일한 통사구조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생략한 부분 또한 많다. 따라서 '업분별' 부분의 한문을 다시 한 번 쓰고 생략부분을 보충하여 밑줄로 표시하였다. 이하 한문에 밑줄친 부분은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12)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13) 마지막 획이 없는 탈획피휘자이다.

起己[ㅋ]有[ㅛ,ㅌ,ㄴ]欲樂決定方便[乙,ノ尸,人]及於彼[ㅋ,十]究竟[ノ尸,人,ㄴ]中[十]所有[ㅅㄱ,ㄴ]意業[ㅣ]

C: 云何乙 貪欲(ㅐ)ㅣノ仝ㅁ 謂 {於}他ㅋ {有}ㅛ(ノ)ㄱ 所十 己ㅋ {有}ㅛㅌㄴ 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於}他ㅋ十 {有}ㅛ(ノㄱ) 所十 己ㅋ {有}ㅛㅌㄴ 欲樂決定方便乙 起ノ尸人 及 {於}彼ㅋ十 究竟ノ尸人ㄴ 中十 有ㅅㄱ 所ㄴ 意業(ㅐ)ㅣ

D: 무엇을 ⑧貪欲이라 하는가? 즉/그 내용은[14] 남이(다른 유정이) 가진 바에 대해 자기가 가지려는 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남이(다른 유정이) 가진 바에 대해 자기가 가지려는 欲樂決定方便[15]을 일으키는 것과 나아가[16] 그것에 대해 (다른 유정이 가진 바에 대해 자기가 가지려는 欲樂을 일으켜) 究竟하는 것 중에 있는 바의 意業이다.

E: 무엇을 탐욕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이의 소유에 대하여 자기 소유로 하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다른 이의 소유에 대하여 자기 소유로 하겠다는 결정적인 방편을 일으키나니, 그것을 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뜻의 업이다.

⑧ 云何貪欲。謂於他有情所有起己有欲樂 起染汚心。若卽於他有情所有起己有欲樂決定方便。及於彼有情所有起己有欲樂究竟中所有意業。

---

14) '즉'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재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D는 가능한 직역을 하는데, '謂'의 본뜻인 '말하다, 알리다, 설명하다'의 뜻을 살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특히 이 구문은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云何~,謂~'로 나타나 '謂'의 서술적 성격이 강하다. '즉'으로 번역할 경우, '卽'이나 '則'이 나올 때 '謂'와는 어떻게 변별할 수 있을까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발표 중 '내용인즉'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병기한다.

15) 方便 : 수단. 방법. 교화수단. 方은 法이고 便은 用. 노력. 유연한 마음가짐.

16) '및'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유가08 20:06-08>

A: 云何瞋恚[51(·),15(·.)]謂於他[23(·),44(·)]起害欲樂[34(·),+15~25(-),31(·)]起染汙心[34(·),+15~25(-),31(·)?]若於他[23(·),44(·)]起害欲樂決定方便[34(·),+15~25(-),31(·)]及{35(·)}於彼[23(·),44(·)]究竟[17)][+15~25(-),31(·),42(·)]中[44(·)?]所有[33(/),42(·)[18)]]意業[51(·)]

B: 云何[乙]瞋恚[丨,丿𠂇口]謂於他[讠,十]起害欲樂[乙,丿尸,人]起染汙心[乙,丿尸,人]若於他[讠,十]起害欲樂決定方便[乙,丿尸,人]及於彼[讠,十]究竟[丿尸,人,七]中[十]所有[丶冂,七]意業[丨]

C: 云何乙 瞋恚(刂)丨丿𠂇口 謂 {於}他讠十 害欲樂乙 起丿尸人 染汙心乙 起丿尸人 若 {於}他讠十 害欲樂 決定方便乙 起丿尸人 及 {於}彼讠十 究竟丿尸人七 中十 有丶冂 所七 意業(刂)丨

D: 무엇을 瞋恚라 하는가? 즉 남에게 害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남에게 害欲樂決定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나아가 그것에 대해(남에게 害欲樂을 일으켜서) 究竟하는 것 중에 있는 바의 意業이다.

E: 무엇을 성냄이라 하느냐 하면, 다른 이에게 해치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다른 이에게 해치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의 결정적인 방편을 일으키나니, 그것을 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뜻의 업이다.

⑨ 云何瞋恚。謂於他有情起害欲樂。起染汚心。若卽於他有情起害欲樂決定方便。及於彼有情起害欲樂究竟中所有意業。

<유가08 20:08-11>

A: 云何邪見[51(·),15(·.)]謂起誹謗欲樂[34(·),+15~25(-),31(·)?]起染

17) 마지막 획이 없는 탈획피휘자이다.
18) [42(·)]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汙心[34(·),+15~25(-),31(·)[19]]若於起[역독선]誹謗欲{14(·)}樂[34(·),24(\),44(·),33(/)][20]決定方便[31(·)]及於彼[23(·),44(·)]究竟[21][+15~25(-),31(·),42(·)]中[44(·)]所有[33(/),42(·)]意業[51(·)]

B: 云何邪見[ㅣ,ノ𠂉口]謂起誹謗欲樂[乙,ノ尸,人]起染汙心[乙,ノ尸,人]若於起誹謗欲樂[乙,ノ𠂉,十,ンㄱ]決定方便[人]及於彼[ラ,十]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ンㄱ,七]意業[ㅣ]

C: 云何(乙) 邪見(ㅣ)ㅣノ𠂉口 謂 誹謗欲樂乙 起ノ尸人 染汙心乙 起ノ尸人 若 {於}誹謗欲樂乙 起ノ𠂉十ンㄱ 決定方便人 及 {於}彼ラ十 究竟ノ尸人七 中十 有ンㄱ 所七 意業(ㅣ)ㅣ

D: 무엇을 邪見이라 하는가? (남에게 대해) 誹謗欲樂을 일으키는 것과 染汙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誹謗欲樂을 일으키는 것에 있어서의 決定方便과[22] 나아가 그것에 대해(남에게 誹謗欲樂을 일으켜) 究竟하는 것 중에 있는 바의 意業이다.

E: 무엇을 사견이라 하느냐 하면, 헐뜯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을 일으키고 더러움에 물드는 마음을 일으키어 헐뜯겠다는 욕망과 즐거움의 결정적인 방편을 일으키나니, 그것을 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뜻의 업이다.

⑩ 云何邪見。謂於他有情起誹謗欲樂。起染汚心。若卽於他有情起誹謗欲樂決定方便。及於彼有情起誹謗欲樂究竟中所有意業。<[2]法相差別 十不善業道 끝>

---

19) [31(·)]이 두 개 현토되어 있다. 그러나 한 점은 뭉개어져 있고, 10행의 '彼'자 55 위치에 있는 다른 한 점은 분명하게 현토되어 있다.

20) 앞에 동일한 구성들이 많이 나오나, 앞에 나온 구성들과 다른 현토 양식을 보이고 있다.

21) 마지막 획이 없는 탈획피휘자이다.

22)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에서는 '남에게 대해 誹謗欲樂決定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정도로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서만 현토 양상이 다르고, 그 점토구결의 현토 양상을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2.3. 雜染施設建立㉠業雜染②業分別〔2〕法相差別 十善業道의 三業(身口意業)

<유가08 20:11-13>

A: 云何[34(·)]離煞生[51(·),15(·.)]謂於煞生[44(·)?][23]起過患欲解[34(·),+15~25(-),31(·)]起勝善心[34(·),+15~25(-),31(·)]若於彼[23(·),44(·)]起靜息方{23(·)}便[34(·),+15~25(-),31(·)]及於彼[23(·),44(·)]靜{25(·)}息究竟[24)][+15~25(-),31(·),42(·)]中[44(·)]所有[33(/),42(·)]身業[51(·)]

B: 云何[ㄹ]離煞生[ㅣ,ノ𠂉ロ]謂於煞生[十]起過患欲解[ㄹ,ノ尸,人]起勝善心[ㄹ,ノ尸,人]若於彼[ㅋ,十]起靜息方便[ㄹ,ノ尸,人]及於彼[ㅋ,十]靜息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ンㄱ,七]身業[ㅣ]

C: 云何ㄹ 離煞生(ㅐ)ㅣノ𠂉ロ 謂 {於}煞生十 過患欲解ㄹ 起ノ尸人 勝善心ㄹ 起ノ尸人 若 {於}彼ㅋ十 靜息 方便ㄹ 起ノ尸人 及 {於}彼ㅋ十 靜息 究竟ノ尸人七 中十 有ンㄱ 所七 身業(ㅐ)ㅣ

D: 무엇을 離煞生이라 하는가? 즉 煞生에 대해 過患欲解를 일으키는 것과 勝善心을 일으키는 것과 그것에 대해(다른 유정을 살생하는 것에 대해) 靜息[25] 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나아가 그것에 대해(다른 유정을 살생하는 것에 대해) 靜息을 일으켜 究竟하는 것 중에 있는 바의 身業이다.

E: 무엇을 산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이라 하느냐 하면, 산 목숨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허물이 된다는 알음알이를 일으키고 훌륭함과 착한 마음을 일으키어 그것을 그만두는 방편을 일으키나니, 그것을 그만두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몸의 업이다.

---

23) 이 부위의 종이가 닳아서 [44(·)]이 희미하다.

24) 마지막 획이 없는 탈획피휘자이다.

25) 靜息 : 閻魔의 한역. Yama염마(지옥의 재판관)는 방편을 가지고서 사람의 죄를 평정하고 죄를 멈추기 때문이다.

云何離煞生。謂於他有情煞生起過患欲解。起勝善心。若卽於彼(有情煞生)起靜息方便。及於彼(有情煞生起)靜息究竟中所有身業。

<유가08 20:13-15>

A: 如離煞生[34(·),11~21(/)]如是[+11~21(·)]離不與取[31(·),4자합부?]乃至[22~32(·)]離邪見[31(·),3자합부?]應知[42(\),51(·)]亦亦[33~43(/),+11~21(·)]

B: 如離煞生[乙,X]如是[支]離不與取[人]乃至[刂]離邪見[人]應知[ノ𠂆七,丨]亦亦[ソ丁 卩,丁]

C: 離煞生乙 如X 是 {如}支 離不與取人 乃(𠂇) 至刂 離邪見人 知 ノ𠂆{應}七丨 亦 亦ソ丁 卩丁

D: ①離煞生을 함과, 이와 같이 ②離不與取와 나아가 ⑩離邪見까지[26], 알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것인 줄을.

E: 산 목숨 죽이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처럼 주지 않으면 가지지 않는 것과 사된 소견을 여의는 데에 이르기까지 역시 그러한 것인 줄 알아야 한다.

如離殺生。如是②離不與取(③~⑨)乃至⑩離邪見。應知亦爾。

<유가08 20:15-18>

A: 此[42(·)]中[22(·),42(·)]差別[22~32(·)]者[15~25(-),23~33(·)]謂於不與取[44(·)]起過患欲解[34(·),+15~25(-),31(·)]乃至[22~32(·)]於邪見[44(·)]起[역독선]過患欲解[34(·),+15~25(-),31(·)]起勝善心[34(·),+15~25(-),31(·)]若於彼[23(·),44(·)]起靜息方便[34(·)?,+15~25(-),31(·)]及於彼[23(·)?,44(·)?]靜息究竟[27][+15~25(-),31

26) 十善業의 첫 번째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어 두 번째 離不與取와 열 번째 離邪見까지 통틀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27) 마지막 획이 없는 탈획피휘자이다.

(·),42(·)]中[44(·)]所有[33(/),42(·)]意業[51(·)]

B: 此[七]中[氵,七]差別[刂]者[尸,入ㄱ]謂於不與取[十]起過患欲解[乙,ノ尸,人]乃至[刂]於邪見[十]起過患欲解[乙,ノ尸,人]起勝善心[乙,ノ尸,人]若於彼[ㄔ,十]起靜息方便[乙,ノ尸,人]及於彼[ㄔ,十]靜息究竟[ノ尸,人,七]中[十]所有[ㄟㄱ,七]意業[丨]

C: 此七 中氵七 差別刂{者}尸入ㄱ 謂 {於}不與取十 過患欲解乙 起ノ尸人 乃(氵) 至刂 {於}邪見十 過患欲解乙 起ノ尸人 勝善心乙 起ノ尸人 若 {於}彼ㄔ十 靜息方便乙 起ノ尸人 及 {於}彼ㄔ十 靜息究竟ノ尸人七 中十 有ㄟㄱ 所七 意業(刂)丨

D: 이(十善業) 가운데서 差別인 것은, 즉 ②不與取에 대해 過患欲解를 일으키는 것과 내지, ⑩邪見에 대해 過患欲解를 일으키는 것과 (②~⑩까지의) 勝善心을 일으키는 것과 곧 그것(②~⑩까지)에 대해 靜息方便을 일으키는 것과 나아가 그것(②~⑩까지)에 대해 靜息을 일으켜 究竟하는 것 중에 있는 바의 意業이다.

E: 이 중에서의 차별이라 함은 주지 않는데 가지는 것에 대하여 허물이 된다는 알음알이를 일으키며, 내지 사뭔 소견에 대하여 허물이 된다는 알음알이를 일으키고 훌륭함과 착한 마음을 일으키어 그것을 그만 둔다는 방편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그만 두게 되는 마지막 동안까지의 온갖 뜻의 업이다.

此中差別者。謂於不與取起過患欲解。乃至於邪見起過患欲解。起勝善心。若卽於彼(不與取~邪見)起靜息方便。及於彼(不與取~邪見起)靜息究竟中所有意業。

<유가08 20:18-20>

A: 如是[33(·)]十種[34(·)]略[15(·)]爲三種[24(·),+51~52(·.)]所謂[33(·)]身業[31(·)]語業[31(·)]意業[31(·),51(·)]卽此三種[34(·)]廣開[33~34(·)?]十種[33~43(·)?][28]應知[42(\),51(·)]

B: 如是[ㄱ]十種[乙]略[ホ]爲三種[ㅔ,xㅣ]所謂[ㄱ]身業[ㅅ]語業[ㅅ]意業[ㅅ,ㅣ]卽此三種[乙]廣開[ㅁㄱ]十種[卬]應知[ノヤセ,ㅣ]

C: 是 如(ン)ㄱ 十種乙 略(ン氵)ホ 三種 爲ㅔxㅣ 謂(ノ)ㄱ 所(ㄱ) 身業ㅅ 語業ㅅ 意業ㅅ(刂)ㅣ 卽 此 三種乙 廣 開ㅁㄱ 十種卬 知ノヤ{應}セㅣ

D: 이와 같은 열 가지(十善業)를 略하여서 세 가지(三業)로 삼는다. 즉(이른 바는) 身業과 語業과 意業이다. 곧 이 세 가지(三業)를 자세히 열면 열 가지[29]인 줄을 알아야 한다.

E: 이와 같은 열 가지는 간략하게 세 가지가 되나니, 이른바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뜻의 업으로서 곧 이는 세 가지를 널리 열 가지로 연 것인 줄 알아야 한다.

如是十種。略爲三種。所謂身業語業意業。卽此三種廣開十種應知。
(雜染施設建立㉡業雜染②業分別 끝)

2.4. 雜染施設建立㉡業雜染③業因

<유가08 20:21-21:01>

A: 業因云何[11(\),+15(·)]應知[42(\),51(·)]有十二種相[33~43(/)?,11(·)][30]一貪二瞋三癡四自五他六隨他轉七所愛味八怖畏九爲損害十戱樂十一法想[31(·)]十二邪見[31(·),51(·)]

B: 業因云何[xㅂ,口]應知[ノヤセ,ㅣ]有十二種相[ンㄱ卬,丁]一貪二瞋三癡四自五他六隨他轉七所愛味八怖畏九爲損害十戱樂十一法想[

---

28) [33~43(·)]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29) ①殺生②不與取③欲邪行<身業>④妄語⑤離間語⑥麤惡語⑦綺語<語業>⑧貪欲⑨瞋恚⑩邪見<意業>

30)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應知[42(\),51(·)?]略[45(·)]說[33~34(·)]有五種相[33~43(/),+11(·)?]<유가08 21:02> 참조.

ㅅ]十二邪見[ㅅ,ㅣ]

C: 業因 云何xㅌㅁ 知ノ亇{應}ㅊㅣ 十二種 相 有ㄴㄱ印丁 一 貪(ㅅ) 二 瞋(ㅅ) 三 癡(ㅅ) 四 自(ㅅ) 五 他(ㅅ) 六 隨他轉(ㅅ) 七 所愛味(ㅅ) 八 怖畏(ㅅ) 九 爲損害(ㅅ) 十 戱樂(ㅅ) 十一 法想ㅅ 十二 邪見ㅅ(ㅂ)ㅣ

D: 業因은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열두 가지 相이 있는 줄을. 첫째 貪과 둘째 瞋과 셋째 癡와 넷째 自와 다섯째 他와 여섯째 隋他轉과 일곱째 所愛味와 여덟째 怖畏와 아홉째 爲損害와 열째 戱樂과 열한째 法相과 열두째 邪見이다.[31]

E: 업의 원인이라 함이 무엇이냐 하면 열 두 가지의 모양이 있는 줄 알아야 하리니, 첫째는 탐냄이요, 둘째는 성냄이요, 셋째는 어리석음이요, 넷째는 자신이요, 다섯째는 다른 이요, 여섯째는 다른 이를 따라 변천함이요, 일곱째는 사랑하는 바의 맛이요, 여덟째는 두려워함이요, 아홉째는 손해를 끼침이요, 열째는 희롱하며 즐김이요, 열한째는 법이라는 생각이요, 열두째는 사뙨 소견이다.

2.5. 雜染施設建立㉡業雜染④業位

<유가08 21:02-03>

A: 業位云何[11(\),+15(·)]應知[42(\),51(·)?]略[45(·)]說[33~34(·)]有

31) (1)貪, (2)瞋, (3)癡 이 3가지가 不善根에 속한다. (4)'自'는 由自力所造者의 뜻이고 (5)'他'는 由他力所造者의 뜻이다. (6)'隋他轉'은 國王·諸侯 등 强權者를 따라 구박(驅迫)되는 것이고 (7)'所愛味'는 자기의 물건을 애착하여 탐욕을 내는 것이다. (8)'怖畏'는 두려워하여 죽이는 등의 업을 짓는 것이고 (9) '爲損害'는 상해(傷害)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여 죽이는 등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10) '戱樂'은 희락하기 위해 죽이는 등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11) '法相'은 殺生을 正法으로 삼아 죽이는 등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12)'邪見'은 인과를 없애려고 죽이는 등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瑜伽論略纂卷三·瑜伽論略纂記卷二下·俱舍論光記卷十九](參閱「業」5494: 불광사전의 내용을 번역 정리하였다.)

五種相[33~43(/),+11(·)?]謂奧位[31(·)]中位[31(·)]上位[31(·)]生位[31(·)]習氣位[31(·),51(·)]

B: 業位云何[xㅌ,ㅁ]應知[ㄴㅎㄴ,ㅣ]略[ㅈ]說[ㅁㄱ]有五種相[ㅅㄱ 卬, ㅜ]謂奧位[ㅅ]中位[ㅅ]上位[ㅅ]生位[ㅅ]習氣位[ㅅ,ㅣ]

C: 業位 云何xㅌㅁ 知ㄴㅎ{應}ㄴㅣ 略ㅈ 說ㅁㄱ 五種 相 有ㅅㄱ 卬 ㅜ 謂 奧位ㅅ 中位ㅅ 上位ㅅ 生位ㅅ 習氣位ㅅ(ㅟ)ㅣ

D: 業位는 무엇인가? 알아야 한다, 간략히 말하면 다섯 가지 相이 있는 줄을. 즉 奧位와 中位와 上位와 生位와 習氣位이다.

E: 업의 자리라 함이 무엇이냐 하면 간략히 말하여 다섯 가지 모양이 있는 줄 알아야 하리니, 부드러움의 자리와 중간의 자리와 위의 자리와 남의 자리와 습기의 자리이다.

<유가08 21:03-04>

A: 由[역독선]奧不善業[34(·),=24(·),43(·)]{32(·)}故[21(·)]生傍生中[44(·),55(·)]

B: 由奧不善業[ㄹ,ㅔ,ㅟ]故[ㄴ]生傍生中[ㅓ,ㅀ]

C: 奧 不善 業ㄹ 由ㅔ(ㄱ)ㅟ 故ㄴ 傍生 中ㅓ 生ㅀ

D: 奧位 不善(의) 業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傍生[32] 가운데에 나며

E: 부드러움의 착하지 못한 업으로 말미암아 축생 중에 나며

<유가08 21:04-05>

A: 由中不善[42(·)]業[34(·)?,=24(·),43(·)]故[21(·)]生餓鬼[42(·)]中[44(·),55(·)?]

B: 由中不善[ㄷ]業[ㄹ,ㅔ,ㅟ]故[ㄴ]生餓鬼[ㄷ]中[ㅓ,ㅀ]

C: 中 不善ㄷ 業ㄹ 由ㅔ(ㄱ)ㅟ 故ㄴ 餓鬼ㄷ 中ㅓ 生ㅀ

---

32) 傍生 : 금수. 짐승.

D: 中位 不善의 業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餓鬼의 가운데에 나며
E: 중간의 착하지 못한 업으로 말미암아 아귀 중에 나며

<유가08 21:05>
A: 由上不善業[34(·),=24(·),43(·)]故[21(·)]生[역독선]那落迦中[44(·),55(·)?]
B: 由上不善業[乙,ᄉᆞ,ᄆᆞᆫ]故[ㅅ]生那落迦中[十,ᄀᆞᆷ]
C: 上 不善 業乙 由ᄉᆞ(ㄱ)ᄆᆞᆫ 故ㅅ 那落迦 中十 生ᄀᆞᆷ
D: 上位 不善 業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那落迦[33] 가운데에 나며
E: 위의 착하지 못한 업으로 말미암아 나라카 중에 난다.(不善業)

<유가08 21:05-06>
A: 由奧善業[34(·),24(·),43(·)]故[21(·)]生人[42(·)?]中[44(·),55(·)]
B: 由奧善業[乙,ᄉᆞ,ᄆᆞᆫ]故[ㅅ]生人[ㅣ]中[十,ᄀᆞᆷ]
C: 奧 善業乙 由ᄉᆞ(ㄱ)ᄆᆞᆫ 故ㅅ 人ㅣ 中十 生ᄀᆞᆷ
D: 奧位 善業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인간의 가운데에 나며
E: 부드러움의 착한 업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인간 세상 가운데에) 태어나며

<유가08 21:06-07>
A: 由中善業[34(·),24(·),43(·)]故[21(·)]生欲界天中[44(·),55(·)]
B: 由中善業[乙,ᄉᆞ,ᄆᆞᆫ]故[ㅅ]生欲界天中[十,ᄀᆞᆷ]
C: 中 善業乙 由ᄉᆞ(ㄱ)ᄆᆞᆫ 故ㅅ 欲界天 中十 生ᄀᆞᆷ
D: 中位 善業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欲界天[34] 가운데에 나며

---

33) 那落迦 : naraka의 음역. 지옥.
34) 欲界天 :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본능적 욕망이 성하고 강력한 세계. 현상적인 육체의 세계. 식욕, 음욕, 수면욕의 삼욕이 있는 세계.

E: 중간의 착한 업으로 말미암아 욕심 세계 하늘의 안에 나며

<유가08 21:07>

A: 由上善業[34(·),24(·),43(·)]故[21(·)]生色无色界[44(·),55(·),42(-),51(·)]

B: 由上善業[乙,ㅔ,ᄭ]故[丿]生色无色界[十,夕,xヒ,丨]

C: 上 善業乙 由ㅔ(ㄱ)ᄭ 故丿 色无色界十 生夕xヒ丨

D: 上位 善業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色界·無色界에 나며 하는 것이다.

E: 위의 착한 업으로 말미암아 형상 세계와 무형 세계의 안에 난다.(善業)

<유가08 21:07-09>

A: 何等[34(/)]名[54(·)]爲耎位不善業[51(·),15(·.)]耶謂[33(·)]以耎品貪瞋癡[34(·)]爲因緣[24(·)[35],45(/)]故[24(·),43(·)?,51(·)]

B: 何等[ㇷㄱ乙]名[下]爲耎位不善業[丨,丿ホロ]耶謂[ㄱ]以耎品貪瞋癡[乙]爲因緣[ㅔ,xㅅ乙]故[ㅔ,ᄭ,丨]

C: 何(ㄱ) 等ㇷㄱ乙 名下 {爲}耎位 不善業(ㅐ)丨丿ホロ{耶} 謂ㄱ 耎品 貪 瞋 癡乙 因緣 {爲}ㅔxㅅ乙 {以}ㅔ(ㄱ) 故ᄭ丨

D: 어떠한 것들을 일컬어 耎位 不善業이라 하는가? 즉 耎品 貪·瞋·癡를 인연 삼는 것으로써인[36] 까닭이다.

E: 무엇을 부드러움의 자리의 착하지 못한 업이라 하느냐 하면, 부드러운 품류의 탐냄, 성냄, 어리석음으로써 인연을 삼기 때문이며,

---

35) [24(·)]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36) '인연 삼는 것을 말미암은'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으로써인 까닭'을 우선하였다.

<유가08 21:09-10>

A: 何等[34(/)]名[54(·)]爲中位不善業[51(·),15(·.)]耶謂以中品貪瞋癡[34(·)]爲因緣[24(·)?,45(/)]故[24(·),43(·),51(·)]

B: 何等[ㅅㄱ ㄹ]名[ㅏ]爲中位不善業[ㅣ,ㅅㅎㅁ]耶謂以中品貪瞋癡[ㄹ]爲因緣[ㅕ,xㅅㄹ]故[ㅕ,ㅟ,ㅣ]

C: 何(ㅁ) 等ㅅㄱ ㄹ 名ㅏ {爲}中位 不善業(ㅐ)ㅣ ㅅㅎㅁ{耶} 謂 中品 貪 瞋 癡ㄹ 因緣 {爲}ㅕxㅅㄹ {以}ㅕ(ㄱ) 故ㅟㅣ

D: 어떠한 것들을 일컬어 中位 不善業이라 하는가? 즉 中品 貪·瞋·癡를 인연 삼는 것으로써인 까닭이다.

E: 무엇을 중간자리의 착하지 못한 업이라고 하느냐 하면 중간 품류의 탐냄, 성냄, 어리석음으로써 인연을 삼기 때문이며,

<유가08 21:10-12>

A: 何等[34(/)]名[54(·)?][37]爲上位不善業[38][51(·),15(·.)]耶謂以上品貪瞋癡[34(·)]爲因緣[24(·),45(/)]故[24(·),43(·),51(·)]

B: 何等[ㅅㄱ ㄹ]名[ㅏ]爲上位不善業[ㅣ,ㅅㅎㅁ]耶謂以上品貪瞋癡[ㄹ]爲因緣[ㅕ,xㅅㄹ]故[ㅕ,ㅟ,ㅣ]

C: 何(ㅁ) 等ㅅㄱ ㄹ 名ㅏ {爲}上位 不善業(ㅐ)ㅣ ㅅㅎㅁ{耶} 謂 上品 貪 瞋 癡ㄹ 因緣 {爲}ㅕxㅅㄹ {以}ㅕ(ㄱ) 故ㅟㅣ

D: 어떠한 것들을 일컬어 上位 不善業이라 하는가? 즉 上品 貪·瞋·癡를 인연 삼는 것으로써인 까닭이다.

E: 무엇을 위의 자리의 착하지 못한 업이라 하느냐 하면 나은 품류의 탐냄, 성냄, 어리석음으로써 인연을 삼기 때문이다.

---

37) [54(·)]이 한자의 획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

38) 業의 중간에 'ㅅ' 모양의 선이 크게 쳐 있다.

<유가08 21:12-13>

A: 若諸善業[33(·),구결자(ㄱ)]隨其所應[33(\),34(·),21(·)]以无貪[31(·)]無瞋[31(·)]无癡[31(·)?,34(·)]爲因緣[24(·),33~43(/),경계선]應知[42(\),51(·)]

B: 若諸善業[ㄱ]隨其所應[ㄴㄱ,乙,ㄴ]以无貪[亻]無瞋[亻]无癡[亻,乙]爲因緣[氵,ㅅㄱ 卬]應知[ㄴ十七,丨]

C: 若 諸 善業ㄱ 其 應ㄴㄱ 所乙 隨ㄴ 无貪亻 無瞋亻 无癡亻乙 {以} 因緣 {爲}氵ㅅㄱ 卬 知ㄴ十{應}七丨

D: (또한/이러한) 모든 善業은 그 마땅한 바를 따라 无貪과 無瞋과 无癡로써 인연 삼는 줄을 알아야 한다.

E: 만약 모든 착한 업이라면, 그의 알맞는 바에 따라서 탐냄 없음과 성냄 없음과 어리석음 없음으로써 인연을 삼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유가08 21:13-14>

A: 何等[34(/)]生位業[51(·),15(·.)]謂已{31(·)}生未滅[22(·)]現在前[33(/)]業[51(·)]

B: 何等[ㅅㄱ 乙]生位業[丨,ㄴ𠂇口]謂已生未滅[氵]現在前[ㅅㄱ]業[丨]

C: 何(ㄱ) 等ㅅㄱ 乙 生位業(刂)丨ㄴ𠂇口 謂 已生未滅(ㅅ)氵 現在前 ㅅㄱ 業(刂)丨

D: 어떠한 것들을 生位業이라 하는가? 즉 已生未滅하여 現在前한 業이다.[39]

E: 무엇을 남의 자리의 업이라 하느냐 하면 이미 나서 아직 없어지지 아니한 현재 앞에 있는 업이며,

---

39) 생위·습기위는 시간성(업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고, 연위·중위·상위는 공간성(업의 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유가08 21:14-15>

A: 何等[34(/)]習氣位業[51(·),15(·.)]謂已生已滅[22(·)]不現前[33(/)]業[51(·)]

B: 何等[ᄂᆞᆨ ᄀᆞᆯ]習氣位業[ㅣ,ᄂᆞᄉᆞᄆᆞ]謂已生已滅[ᄋᆞ]不現前[ᄂᆞᆨ]業[ㅣ]

C: 何(ᄀᆞᆯ) 等ᄂᆞᆨ ᄀᆞᆯ 習氣位業(ㅢ)ㅣ ᄂᆞᄉᆞᄆᆞ 謂 已生已滅(ᄂᆞ)ᄋᆞ 不現前ᄂᆞᆨ 業(ㅢ)ㅣ

D: 어떠한 것들을 習氣位業이라 하는가? 즉 已生已滅하여 不現前한 業이다.

E: 무엇을 습기의 자리의 업이라 하느냐 하면 이미 났다가 이미 없어져서 앞에 나타나 있지 않은 업을 말한다.

瑜伽師地論卷第八(끝)

참고문헌

김동화(2001), 『유식철학』, 불교시대사.

김성주(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6)」,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213-232.

남풍현(1999),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박진호(2004),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2)」, 『구결연구』 12, 구결학회, 2165-231.

서민욱(2005ㄱ), 「유가사지론 권5·8의 점토구결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민욱(2005ㄴ),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5)」, 『구결연구』 14, 구결학회, 197-212.

동국역경원(1995), 『한글대장경 유가사지론』 1.

이만 역(1991), 핫토리 마사아키 외, 『인식과 초월』, 민족사.

이만 역(1993), 다카사키 지키도 외, 『유식사상』, 경서원.

이승재(2001), 「유가사지론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이승재 · 안효경(2001), 「각필 부호구결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성암본 유가사지론 권제5와 권제8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9, 구결학회, 115-145.

이지수 역(1989), 다카사키 지키도 저, 『유식 입문』, 시공사.

장경준(2005),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해독 방법 연구-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36-070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83 인촌로 제2빌딩 301호 한국학연구소 연구지원실〕
E-mail: suriya@korea.ac.kr
접수일자: 2005. 12. 19.
게재결정: 2006. 01. 25.

〈별첨〉*

雜染施設建立㉡業雜染②業分別[2]法相差別

復次法相差別建立者。謂卽殺生離殺生等。

<身業>

①云何殺生。謂於他衆生起殺欲樂。起染汚心。若卽於彼起殺方便。及卽於彼殺究竟中所有身業。

②云何不與取。謂於他攝物。起盜欲樂。起染汚心。若卽於彼起盜方便。及卽於彼盜究竟中所有身業。

③云何欲邪行。謂於所不應行非道非處非時。起習近欲樂。起染汚心。若卽於彼起欲邪行方便。及於欲邪行究竟中所有身業。

<語業>

④云何妄語。謂於他有情起覆想說欲樂。起染汚心。若卽於彼起僞證方便。及於僞證究竟中所有語業。

⑤云何離間語。謂於他有情起破壞欲樂 起染汚心。若卽於彼起破壞方便。及於破壞究竟中所有語業。

⑥云何麤惡語。謂於他有情起麤語欲樂。起染汚心。若卽於彼起麤語方便。及於麤語究竟中所有語業。

⑦云何綺語。謂於他有情起綺語欲樂。起染汚心。若卽於彼有情起不相應語方便。及於彼有情起不相應語究竟中所有語業。

<意業>

⑧云何貪欲。謂於他有情所有起己有欲樂 起染汚心。若卽於他有情所有起己有欲樂決定方便。及於彼有情所有起己有欲樂決定究竟中所有意業。

---

* 이것은 해독안 마지막에 제시한 유가사지론 한문 부분을 모은 것이다. 모아 놓은 이유는 생략 부분과 반복구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말했듯이 본고의 내용은 권 8의 마지막 부분이라 앞 내용과 같거나 반복되는 구조는 과감하게 생략한 부분이 많다. 그 부분을 필자가 앞뒤 문맥을 살펴 생략된 부분을 밑줄과 ( )로 보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완벽한 재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견해가 있다면 수용하여 고치도록 하겠다.

⑨云何瞋恚。謂於他有情起害欲樂。起染汚心。若卽於他有情起害欲樂決定方便。及於彼(他有情起害欲樂)究竟中所有意業。

⑩云何邪見。謂於他有情起誹謗欲樂。起染汚心。若卽於他有情起誹謗欲樂決定方便。及於彼(他有情起誹謗欲樂)究竟中所有意業。

<十善業>

云何離煞生。謂於他有情煞生起過患欲解。起勝善心。若卽於彼(他有情煞生)起靜息方便。及於彼(他有情煞生)起靜息究竟中所有身業。

如離殺生。如是②離不與取(③~⑨)乃至⑩離邪見。應知亦爾。

此中差別者。謂於不與取起過患欲解。乃至於邪見起過患欲解。起勝善心。若卽於彼(不與取~邪見)起靜息方便。及於彼(不與取~邪見)靜息究竟中所有意業。

如是十種。略爲三種。所謂身業語業意業。卽此三種廣開十種應知。

<業因>

業因云何。應知有十二種相。一貪。二瞋。三癡。四自。五他。六隨他轉。七所愛味。八怖畏。九爲損害。十戲樂。十一法想。 十二邪見。

<業位>

業位云何。應知略說有五種相。謂奧位中位上位生位習氣位。由奧位不善業故。生傍生中。由中位不善業故。生餓鬼中。由上位不善業故。生那落迦中。由奧位善業故。生人中。由中位善業故。生欲界天中。由上位善業故。生色無色界。

何等名爲奧位不善業耶。謂以奧品貪瞋癡爲因緣故。

何等名爲中位不善業耶。謂以中品貪瞋癡爲因緣故。

何等名爲上位不善業耶。謂以上品貪瞋癡爲因緣故。

若諸善業。隨其所應。以無貪無瞋無癡爲因緣。應知。

何等名爲生位業耶。謂已生未滅。現在前業。

何等名爲習氣位業耶。謂已生已滅。不現前業

A Study on Cipher Kugyols Inscribed in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Focusing on vol. Ⅷ. 19:23-21:15-

Chung, Jin-won

This paper surveys the brief textual structure of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vol. 8, and presents a tentative decipherment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scribed in a part of that volume.

*Key words: Yogacārabūṃmi(瑜伽師地論), cipher kugyol(點吐口訣)